

기후위기 속 농업 대전환... 유통혁신·K-푸드 미래 연다

K-퍼블릭 탐방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 홍문표)가 국민 먹거리 안정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경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지방소멸에 맞서 '7대 농업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행보가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편집자주〉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내부 혁신을 위한 조직·경영분과 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문표(가운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지난 8월25일 전북 남원에서 배추 싹파리 '하라듀'의 생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aT

aT는 '5100만 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관'이라 자부한다. 지난해 9월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전담반)를 신설하고 농업 전반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장 위기 진단을 거쳐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할 7대 혁신방향을 사업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즉 ▲친환경·저탄소 농업전환 ▲씨종자·신품종 개발 ▲저온비축기지(거점별 광역화) ▲유통구조 개선(온라인도매시장·직거래장터) ▲쌀 중심 식량구조의 다각화 ▲통계농업 및 사계절 스마트팜 구축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통한 식품영토 확장이다. aT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기술개선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신품종 개발 통한 여름철 안정 생산

신품종 개발과 재배적지 확대는 공사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덥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하라듀' 배추 신품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여름(하)과 영어의 내구성을 결합한 이름의 하라듀는 기존 품종보다 수확 시기가 10~15일 빠르고 더위 견딤성과 조기 결구력이 우수하다. 현재 강원 평창·정선을 비롯해 전북 남원, 전남 해남·화순 등 8개 지역에서 총 400톤(t) 규모의 시범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 고랭지 중심의 재배 체계를 준고랭지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달 23일 전남 나주에서 막을 올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선 '기후변화 대응 준고랭지 신품종 여름배추 육성지원 행사'가 예정돼 있다. 하라듀 배추로 담긴 김치의 시식·평가가 진행되며, 소비자와 농업 관계자가 함께 기후적응형 신품종의 우수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신품종 개발 통한 생산안정 준고랭지 재배 확대 추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급증 농가소득 개선·체질 변화

◆유통비용 절감 온라인도매시장 급성장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 공공형 플랫폼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거래액이 8600억 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1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

aT는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이후 유통비용이 7.5% 감소하고 농가 수취가격이

3.6%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산지 직수집이 활성화되며 도매시장 수수료 및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거래정보고도화, 거래방식다양화, 물류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디지털 유통혁신 2.0 단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 혁신 위한 전문가 자문강화

aT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7대 혁신의 핵심분야과제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대규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 9월에는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11월에는 급식 분야 공청회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aT 혁신자문위원회(정부·학계·언론·현장전문가 28명)가 꾸려져 기후변화 시대 공사의 역할 및 실행전략 논의에 한창이다.

◆K-푸드 세계화로 한국 식품영토 확장

K-푸드의 세계화는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의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들어 9

월29일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8일 앞당긴 역대 최단기간 기록이다.

미국(+15.3%), 유럽(+15.8% ↑), 걸프협력회의(GCC·+9.6%), CIS(독립국가연합·+5.6%)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라면·김·김치·포도·소스류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K-푸드 수출 100억 弗 돌파 할랄한우 중동시장 진출 라면·김치 등 품목 다변화 식품영토 확장·성장가속

공사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운송비·시설자금 지원, 환변동보험 완화 등 실질적 수출지원책을 실시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한우를 비롯해 베트남 참외 수출 등 검역 해소 활동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K-콘텐츠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드라마·콘서트·영화제 등 현지 한류 행사와 연계한 시식행사에서 K-푸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할랄인증 한우로 중동진출 기반 구축 최근 UAE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프리미엄 축산물 수출의 새 길이 열렸다. 농식품부와 aT는 UAE와의 검역·위생 협상 지원 및 현지 대응을 통해 지난달 UAE 정부의 최종 등록 승인(황성케이지 할랄도축장)을 이끌어냈다.

이번 등록으로 냉장·냉동 형태의 할랄 적색육(한우)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등록 효력은 내년 9월10일까지 유지된다.

aT는 2022년부터 현지 수요조사, 제도 분석, 도축장 인증 절차 지원, 실사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해 왔고, 두바이 지사를 중심으로 UAE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6월에는 두바이 K-푸드 박람회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시장 진입 준비를 마쳤다.

홍문표 aT 사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농업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aT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산 및 유통에서의 혁신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식량주권 확보와 식품영토 확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희 기자 kys@metroseoul.co.kr

의정부viewtiful

시민이 직접 뽑은 의정부 8경(景)

망월사

기암절벽 속 숨은 고찰, 망월사

미술도서관

국내 최초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 미술도서관

수락산 도정봉

화강암 능선이 펼쳐진 경관, 수락산 도정봉

음악도서관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간, 음악도서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 구석구석을 잇다,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예술의 전당

감동과 열정! 의정부 문화예술의 중심,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의정부제일시장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수 재래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회룡사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전설을 만나다, 회룡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